분과 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한-일)

사회 : 김금숙(상지대학교)

언어유희의 한일 번역 분석 연구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비책'의 제목 번역을 중심으로-

나카시마 모에노(한국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번역학에서 계속해서 논의되는 것은 직역과 의역을 둘러싼 문제들이다. 직역 대 의역의 논쟁은 주로 ST에 대한 충실성을 보일 것인지, TT 독자에 대한 충실성을 보일 것인지에 따라 학자마다 의견이 갈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유희는 언어적 형태와 의미 간의 결합이 매우 강한 경우가 많다. 언어유희는 ST의 언어적 형태나 언어구조가 전달하는 의미나 효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번역이라는 작업에서 언어유희는 과연 번역 가능성을 띠는가? 즉 언어적 형태와 의미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실제로 Delabastita(1996)는 언어유희의 번역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번역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원전에 대한 형태적 의미적 충실성으로 보게 되면 언어유희를 제대로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유희의 번역가능성을 찾기 위한 8가지 분류를 제시하면서 언어유희 번역을 분류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는 언어유희의 번역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 유튜브 채널의 언어유희가 사용된 제목을 일본어로 어떤 번역 방법으로 번역하였는지 Delabastita(1996)의 언어유희 번역 방법을 바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언어유희의 번역 방법과 한일 간에서 이루어지는 유튜브 제목 번역의 실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언어유희와 제목 번역

언어유희는 표준어 국어대사전에서는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나 ‘기지 또한 재치 있는 말의 교환, 재치 있는 즉답, 기지 또는 재치 있는 말을 교환하는 행위 또는 사례’로 정의되고 있다.

구현정(2002)는 언어유희를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해주기 위한 말의 통칭이라고 정의하였고, 오미형(2010)은 언어유희를 형태와 의미가 굳게 결속된 것이라고 하였다. 최송하, 윤영은(2016)은 언어유희의 효과는 특정 언어의 구조나 문화에 근거하므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Delabastita(1993)는 언어의 랑그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기의와 유사한 기표를 가진 두 개의 언어적 구조 사이에서 소통적으로 의미가 있는 동시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텍스트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언어유희에 대한 정의는 여러 논문이나 사전에서도 다소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유희를 가장 광범위로 정의한 구현정(2002)과 같이 다른 사람을 웃기거나 즐겁게 하기 위한 말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언어유희의 형태적인 대응이 아닌 표현적 등가 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어유희 번역 방법을 분류함으

로써 언어유희의 번역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Delabastita(1996)의 첫 번째 언어유희 번역 전략은 ST의 언어유희를 TT에서도 유지하는 방식이다. ST의 언어유희가 의미와 형태 면에서 TT에서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을 때 그대로 TT로 직역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ST의 언어유희가 TT에서 그대로 통용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TT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ST의 언어유희를 풀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TT 시청자는 그것이 원래 언어유희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TT에서 비언어유희로 번역하되 ST의 언어유희에 쓰는 단어나 문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ST의 언어유희를 TT의 관련 수사 장치로 번역하는 전략이다. ST와 TT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직유나 은유와 같은 수사적 패턴을 사용해 TT로 번역한다.

네 번째 전략은 ST의 언어유희를 TT에서 아예 생략해버리는 번역방식이다. ST의 언어유희가 TT에서 생략되는 것은 ST의 언어유희가 주는 유머 효과가 TT에서 아예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튜브 제목 번역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전략은 ST의 언어유희를 TT 자체의 언어유희로 번역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언어 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이다. 여섯 번째 전략은 ST의 비언어유희를 TT에서 언어유희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ST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유희가 TT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번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ST에서 비언어유희적 표현으로 존재하였던 것을 TT에서 언어유희로 바꾸어 번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곱 번째 전략은 ST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유희를 TT에서 첨가하는 경우의 번역 방식이다. 이 전략은 ST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유희를 TT에서 첨가하는 방식의 전략이다. 이 방식은 새로운 언어유희 구절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여섯 번째 전략과 대조된다. 여덟 번째 전략은 ST의 언어유희를 TT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경우이다. 이때 TT에서는 ST 언어유희가 가지는 의미와 재미 효과 등을 전달할 수 있게 설명을 첨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Delabastita(1996)의 언어유희 번역 전략을 도표화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Number	ST	TT
1	언어유희(Pun)	언어유희(Pun)
2	언어유희(Pun)	비언어유희(Non-pun)
3	언어유희(Pun)	관련 수사 장치(Related rhetorical device)
4	언어유희(Pun)	생략(Zero)
5	ST 언어유희(Pun ST)	TT 자체의 언어유희(Put TT)
6	비언어유희(Non-pun)	언어유희(Pun)
7	생략(Zero)	언어유희(Pun)
8	언어유희(Pun)	설명적 기법(Editorial Technique)

〈표1〉 [언어유희 번역 방법(Delabastita:1996)]

본 논문에서 필자는 Delabastita(1996)가 제시한 언어유희 번역 방법의 8가지 분류 중 유튜브 제목 번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언어유희 유지, TT 자체의 언어유희, 비언어유희, 생략, 설명적 기법의 5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이 다섯 가지 분류를 다시 크게 두 개로 분류하였다. ST의 언어유희가 그대로 언어유희로서 TT에서 존재할 경우도 있지만 TT로 번역되면서 언어유희의 유희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Delabastita(1996)의 언어유희 번역 방법에서는 따로 TT에서의 유희성에 따라 분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번역 방법에 따라 유희성이 손실이 되고 가독성 및 정보 전달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유희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ST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는 번역인 언어유희 유지와 TT 자체의 언어유희로 번역하는 방법을 한 묶음으로, ST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지 않는 번역으로 비언어유희, 생략과 설명적 기법을 한 묶음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언어유희 번역 전략을 도표화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ST			TT
1	언어유희(Pun)	+ 유희성	1	언어유희 유지(Pun)
			2	TT 자체의 언어유희(Put TT)
2	언어유희(Pun)	− 유희성	1	비언어유희(Non-Pun)
			2	생략(Zero)
			3	설명적 기법(Editorial Technique)

〈표2〉 [언어유희 번역 방법(나카시마모에노:2022)][1)]

이처럼 Delabastita(1996)의 언어유희 번역 방법을 정리하면 언어유희의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준 기준으로 유희성을 유지한 번역이 번역가능성을 띠며 유희성을 유지하지 못한 번역이 언어유희의 번역불가능성을 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eiss&Vermeer(1984)나 Nord(1997)도 출발텍스트의 지위 격하(dethronement of the ST)를 인정하고 있으며 언어유희 번역에서도 이 부분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유희의 번역은 몹시 어려우며 번역가능성은 번역불가능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으로는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비책'에 업도드된 동영상의 한국어 제목으로 하였다. 이 채널은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구독자 수는 무려 579만 명이다.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의 한국어 제목 특징으로 언어유희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이 동영상 자막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제목에 있어서는 부제목으로 영어를 넣어두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별적으로 일본어로 제목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3. ST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는 번역

3.1 언어유희 유지(Pun)

첫 번째로 ST의 언어유희가 그대로 TT에서 직역되는 방식으로 출현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ST	TT
초코초코초코 브라우니 & 건더기 생생 사과 홍차! 특집사과대잔치	チョコチョコチョコブラウニー&具たっぷりのアップルティー[特集りんごパーティー] (초코초코초코브라우니&건더기 듬뿍 애플티[특집사과파티])
매콤새콤달콤 쫄면! 하지만 전 쫄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甘から酸っぱい「チョルミョン」! でも僕はあまり好きではないです…それは何故か…! (매콤새콤달콤 '쫄면'! 하지만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그 이유는…!)

〈표3〉 언어유희 유지 사례

1) 표에서 첫 번째 분류는 ST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는 번역으로 정의하였으며 두 번째 분류는 ST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지 않는 번역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어 제목에서 ‘초코초코초코 브라우니’, ‘건더기 생생’ 등의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초코를 3번 반복해서 쓰면서 브라우니에 초코가 많이 들어간 것을 표현해주는 동시에 시청자들이 웃기거나 즐길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일본어 제목에서는 ‘チョコチョコチョコブラウニー’로 그대로 직역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한국어와 비슷하게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초코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초코 브라우니’라고 들었을 때보다 ‘초코초코초코 브라우니’라고 들었을 때 더욱 흥미를 느끼기 쉬운 것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은 한국어 언어유희가 거의 똑같이 직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ST 언어유희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유희가 유지되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한국어 제목에서 ‘매콤새콤달콤 쫄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매콤’ ‘새콤’ ‘달콤’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수식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기까지 하는 쫄면’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쫄면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 제목에서도 한국어 제목과 마찬가지로 ‘甘から酸っぱい’라고 번역되면서 ‘甘い’ ‘辛い’ ‘酸っぱい’라는 3가지 맛 표현이 같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甘辛い’ ‘甘酸っぱい’처럼 달콤매콤하다, 달콤새콤하다 등의 표현은 존재하지만 매콤새콤달콤처럼 3가지 맛 표현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효과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의 언어유희가 직역되면서 유지 전략이 사용되었다. 이로써 ST 언어유희를 전달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3.2 TT 자체의 언어유희(Put TT)

두 번째는 ST의 언어유희가 그대로 직역되지 않고 TT 자체의 언어유희로 번역되어 언어유희의 기능이 전달이 된 사례이다.

ST	TT
고구마빠스! 손에 묻지 않는 고구마맛탱!	外冷中熱「さつまいもマッタン」 (겉냉속열 ‘고구마맛탕’)

〈표4〉 TT 자체의 언어유희 사례

한국어 제목은 ‘고구마빠스! 손에 묻지 않는 고구마맛탕!’이다. 이 동영상 내용을 보면 “겉은 차고 속은 뜨듯한 겉차속뜨 고구마맛탕”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고구마빠스라는 말은 겉은 차갑지만 속이 뜨겁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표현적으로도 ‘고구마빠스’라고 하였을 때 바로 ‘겉차속뜨’의 의미로 알아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제목에서 사용된 이 언어유희는 원래의 사람을 웃기거나 재미있게 하는 말이라는 성질보다는 고구마빠스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거나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영상 내용을 시청하면 이것이 재미있으라고 붙인 제목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 제목에서는 고구마빠스라는 표현을 살리되 일본 현지에서도 말이 통하는 언어유희로 바꾸어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ST의 언어유희의 기능과 의미를 살리면서 TT 문화권에서도 언어유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번역한 것이다. 일본

어 제목은 '外冷中熱「さつまいもマッタン」(겉냉속열 '고구마맛탕')'으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어 유행어에도 겉바속촉(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이 있듯이 사자성어처럼 外冷中熱(겉냉속열)이라고 함으로서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언어유희의 기능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ST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지 않는 번역

4.1 비언어유희(Non-Pun)

ST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지 않는 번역으로 ST의 언어유희를 TT에서 비언어유희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다.

ST	TT
재개장 매장 신규 메뉴 점검받는 날인데… 에헤이… 조졌네 이거![2]	再オープン店舗の新しいメニューチェックを受ける日なのに… はあ… ダメでしょう これ！ (재개장 매장의 새로운 메뉴 체크를 받는 날인데...하...안되죠 이겟!)

〈표5〉 비언어유희 사례

이 제목에서 사용된 언어유희는 한국의 유명 유튜버인 순자엄마의 유명 대사 중 하나이다. 동영상 속에서 삶은 닭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재밌다고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고 나서 여러 유명인이 패러디한 대사이다. 한국어 제목에서 '에헤이 조졌네 이거!'라는 말을 넣어줌으로써 재개장하는 매장의 신규 메뉴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시청자들이 웃길 수 있는 제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인 유튜버인 순자엄마의 인지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해도 일본 시청자들이 재미 요소로 느끼지는 못한다. 또한 3.1에서 다룬 단어의 일대일 번역이 가능한 언어유희 유지 방법과는 달리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없으면 이러한 패러디는 비언어유희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디를 사용한 언어유희는 대부분이 4.2에서 볼 수 있듯이 생략이 되고 만다. 여기서는 'はあ… ダメでしょう これ！(하...안되죠 이것!)'로 직역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어떠한 재미 요소도 찾지 못한다.

4.2 생략(Zero)

두 번째로 ST의 언어유희가 TT에서 생략된 방식으로 출현한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언어유희가 부분적으로 생략된 사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체 생략이 이루어진 사례에 관해 설명하도록 한다.

---

2) https://www.youtube.com/watch?v=rgDH_x3F-kE
먹방) 저 닭새끼가 또우네ㅋㅋㅋㅋㅋㅋㅋㅋ

ST	TT
스.푸.파 속 음식 따라하기! 청두야시장에서 먹던 그 감자 요리?!	成都夜市のあのじゃがいも料理！「麻辣フライドポテト」 (청두야시장의 저 감자요리! '마파 감자튀김')
사과한테 사과하세요. 너무 맛있는 사과부침개	揚げ物は何でも旨い！「千切りりんごチヂミ」 (튀김은 무엇이든 맛있어! '채썬 사과부침개')

〈표6〉 생략 사례

첫 번째 유튜브 제목은 '스.푸.파 속 음식 따라하기! 청두야시장에서 먹던 그 감자 요리?!'라는 제목이다. 이 제목에 나타나는 '스.푸.파'란 tvN에서 방영된 백종원이 해외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보여준 '스트리트 푸드파이터'를 말하는 것이다. 평소에 백종원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에게는 아주 흥미를 주는 제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스트리트 푸드파이터'라는 방송이 유명하지 않고 방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 시청자에게 주는 효과를 똑같이 주기가 어렵다. 또한 스트리트 푸드파이터를 '스.푸.파'로 표현한 것에도 언어유희적 의미가 있다. 이것은 2021년에 Mnet에서 방영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줄여서 부른 말 '스우파'를 모티브한 것이다. 실제로 스우파는 많은 인기를 얻어 한 회의 클립 영상이 1천 520만 뷰를 넘어 방송을 시작한 지 3주만에 같은 기간 회별 클립 평균 조회 수에서 1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방송을 아는 시청자 수도 적은 데다가 줄임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언어유희로 전달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유희에 해당되는 표현을 아예 생략을 하고 '成都夜市のあのじゃがいも料理！「麻辣フライドポテト」(청두야시장의 저 감자 요리! '마파 감자튀김')'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청두야시장에 대한 인식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과다가 되지 않게 불필요한 언어유희는 전체적으로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제목은 '사과한테 사과하세요. 너무 맛있는 사과부침개'라는 한국어의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는 제목이다. 이 제목에서는 사과(apologize)와 사과(apple)라는 한국어의 동음이의어를 사용하고 '사과'라는 단어를 연속으로 씀으로써 재미요소를 추가하고 '사과'가 사용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과(apple)를 사과(apologize)할 때 건네 친구끼리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유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과(apologize)는 '謝る'나 '謝罪'가 되고 사과(apple)는 'りんご'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의 언어유희를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또한 비언어유희로 번역한다고 해도 'りんごに謝ってください'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재미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자는 생략 번역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언어유희의 경우 형식적인 부분과 아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기 때문에 비언어유희로 번역하기가 어렵다. 일본어 제목은 다시 '揚げ物は何でも旨い！「千切りりんごチヂミ」(튀김은 무엇이든 맛있어! '채썬 사과부침개')'로 번역되면서 ST의 언어유희가 완전히 삭제된 사례이다.

4.3 설명적 기법(Editorial Technique)

세 번째로 ST의 언어유희가 TT에서 설명적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출현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설명적 기법은 ST 언어유희에 사용된 표현을 풀어서 설명한 경우의 번역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적 기법은 유지 전략과 마찬가지로 ST 언어유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번역으로 정의하였다.

ST	TT
NO오븐 베이킹 🐶 맛있는 초코롤 혼자 먹다 소여사한테 딱 걸림..!	バレンタインデー用のベーキング！ 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チョコパンを一人で食べてたら妻に怒られました…！ (발렌타인데이용의 베이킹! 너무너무 맛있는 초코빵을 혼자서 먹고 있었더니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표7〉 설명적 기법 사례

이 제목은 'NO오븐 베이킹 🐶(개) 맛있는 초코롤 혼자 먹다 소여사한테 딱 걸림..!'이라는 제목이다. 여기서는 개를 '🐶 맛있는 초코롤(개 맛있는 초코롤)'처럼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초코롤이 너무 맛있다는 것을 강조해 표현해주고 있다. 4.1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어 신조어 중 하나로 어떤 표현을 강조하고 싶을 때 구어체에서 형용사 앞에 '개', '존' 등을 넣어서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유튜브 제목에서도 강조 표현으로 '🐶 맛있는'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라고 넣으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대신 넣어주면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로는 'くそうまい'나 'くそかっこいい'처럼 'くそ(똥)'를 쓰는 경우를 볼 수는 있다. くそ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똥의 의미에 해당하지만 역시 한국어의 개나 존과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개와 존과 비교해서 일본에서는 덜 대중적인 표현이며 한국어에 비해 비속어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표현이 다소 거칠하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제목에서는 설명적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어 제목에서는 'バレンタインデー用のベーキング！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チョコパンを一人で食べてたら妻に怒られました…！(발렌타인데이용 베이킹! 너무너무 맛있는 초코빵을 혼자서 먹고 있었더니 아내한테 혼났습니다...!)'로 번역되면서 전체적으로 ST의 언어유희를 설명하면서 풀어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ST			TT	출현 수	백분율(%)
1	언어유희(Pun)	+유희성	1	언어유희 유지(Pun)	9	18.0
			2	TT 자체의 언어유희(Put TT)	2	4.0
2	언어유희(Pun)	-유희성	1	비언어유희(Non-Pun)	4	8.0
			2	생략(Zero)	27	54.0
			3	설명적 기법 (Editorial Technique)	8	16.0
합계					50	100

〈표8〉 언어유희 번역 결과

분석을 통해 언어유희가 TT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9건(18.0%)이었으며 언어유희가 TT 제목에서 TT 자체의 언어유희로 번역된 경우는 2건(4.0%)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ST 언어유희의 기능인 유희성을 전달하는 번역은 전체 50건 중 11건(22.0%)으로 드러났다. ST의 언어유희가 그대로 TT에서도 유지된 사례는 대부분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TT 자체의 언어유희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체 50건 중 2건으로 이는 언어유희를 직접 번역자가 창작해야 한다는 점이 요인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어 언어유희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일본어에서 사람을 웃기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는 말로 재생산하는 것은 번역자가 얼마나 TT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해당 번역 방법이 많이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ST의 언어유희가 비언어유희로 번역된 경우는 4건(8.0%)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ST의 언어유희를 직역하는 방식으로 ST 언어유희의 유희성은 전달되지 못하나 언어유희의 의미만 전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T의 언어유희가 TT에서 생략된 경우는 27건으로 5가지 번역 방법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의 54.0%를 차지하는 생략 번역 방법은 한국 국내의 유행어나 패러디 등을 사용한 것이었다. 문화적 배경이 없는 TT 시청자들에게는 언어유희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역하면 동영상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자는 생략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설명적 기법을 쓰는 경우는 8건(16.0%)이었다. 이 방법은 유희적인 표현을 풀어서 설명한 번역방식이며 ST 언어유희의 기능이 아닌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려 78.0%가 언어유희의 유희성을 유지하지 않는 번역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은 번역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는 언어유희의 번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유튜브 채널의 제목을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Delabastita(1996)의 분류를 바탕으로 유튜브 제목 번역에 적합한 5가지 분류로 재구성해 유튜브 제목 번역을 분류하였다. 한일 유튜브 제목 번역을 언어유희 유지, TT 자체의 언어유희, 비언어유희, 생략, 설명적 기법의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도 생략 전략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이유로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언어유희의 특수성이 있다. 한국어 제목에 나타난 언어유희가 대중적이고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닌 최근에 인기를 얻었던 방송명이나 명대사, 신조어, 유행어 등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인 중에서도 연령대에 따라서는 언어유희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들이 제목에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은 속담이나 은유 등 어느 정도 번역이 가능한 언어유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처럼 이해용이성이 떨어지는 언어유희 번역에서는 Toury(1995)가 제시한 단순화(simplification), 외연화(explicitation) 등의 번역 보편소 후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난 생략 번역 방법에서는 ST의 언어유희가 단순화되며 비명시적인 정보이었던 음식명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두 번째로는 한일 언어 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 제목에 나타난 언어유희를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TT 시청자에게 재미 요소로 와닿지 않거나 오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었다. 즉 ST의 언어유희가 TT에서는 더 이상 언어유희로 존재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생략 전략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에서는 제목 번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채널 자체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유희의 기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유희의 의미에 집착하지 않고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는 생략 번역 방법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제목이라는 특성상 시청자들이 제목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희성을 전달하지 않은 번역에서도 음식명을 명확히 해주거나 일본 국내에서 더 받아들이기 쉬운 다른 표현을 넣어줌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유튜브 시청자가 많아졌다. 스코파스 이론에 비추어 봐도 유튜브와 같이 시청자 생성을 추구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제목은 채널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 시청자로부터 선택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목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목 번역 또한 같은 선상에서 그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목 번역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을 깨달았다.

Delabastita(1996)의 언어유희 번역 전략을 모두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이유로는 분류하려고 하는 대조 언어가 다르므로 출현을 확인할 수 없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구체적인 분류를 할 수 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구현정. (2002).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 248. 159-184.
김유정. (2007). 문학텍스트 번역에 있어서 등가성의 원리: 담화의 의미화 과정signifiance를 중심으로. 프랑스학 연구 . 41. 5-44.
성혜경(2015), 가와바타 야스나리의『설국』번역 ―사이덴스티커의 Snow Country을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199-221.
손재현(2008), 일본어 차용접미사 '的(teki)'의 한일번역의 제문제, 번역학연구, 9(4), 221-245.
송경숙(2003),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오경순(2012)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99권 P.75-92.
오미형(2010), 언어유희 한영자막번역 전략의 다양성, 통번역교육연구, 8권 2호, 151-177.
오미형(2010), 언어유희 한영 자막번역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주영(1998), 화용론과 의미해석-화행, 전제, 함축-, 경성대학교 출판부.
왕이적(2018), 중한 드라마 자막번역 연구 -청춘 드라마『가장 좋은 우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룡(2014),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 도서출판 유유.
이다현(2006), 영상번역을 위한 함축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성만(2012), 미디어 언어의 텍스트화용론, 경진.
이성범(2016), 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은용(2011), 일한 출판 번역물에 나타나는 번역 양상과 전략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송하, 윤영은(2016), 언어유희 번역 재고, 한국영어학회영어학영어학 Vol.16-2, 331-357.
황규삼(2016),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한자의 차용(借用)과 오노마토피아의 차자(借字)표기, 한국사상과 문화 81, 361-382.
Chesterman, A.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n theory. Amsd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Chesterman, A. (2000). What constitutes "progress" in Translation Studies? In Birgitta Englund Dimitrova (Eds.), Översättning och tolkning. Rapport från ASLA:s höstsymposium, Stockholm, 5-6 november 1998. Uppsala: ASLA, 33-49, 151-160.
Delabastita, D. (1996). Introduction. In Delabastita, D. (Ed.), Wordplay and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27-140.
Jeremy Munday(2017), 번역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인칭 직시적 표현의 일한 번역 연구
-의미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우메무라 마유미(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본고는 번역을 서로 다른 언어가 접촉·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간주하고 출발어(source language; SL) 텍스트의 의미를 도착어(target language; TL) 텍스트로서 재창조하는 것, 즉 출발 텍스트(source text; ST)의 의미[1]를 도착 텍스트 (target text; TT)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의미의 동일성'에 있고 번역자는 번역된 텍스트를 읽는 TT 독자가 마치 ST를 읽는 것처럼 ST 독자와 같은 문학적 정취와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즉 SL에서 의미 공유된 정보를 TT 독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번역자는 글의 흐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정보를 TT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번역 가운데 문학작품 번역은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문학작품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진 복잡하고 다차원적 구조이기 때문이다.특히 소설은 서술의 초점, 즉 화자, 청자, 그리고 제삼자를 가리키는 시점(視點 point of view)에 따른 언어적 기호에 의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한 화자의 시점 및 발화상황에 직접 관여하는 문법적·화용적 기능이 직시(直示 deixis)이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인칭 직시(person deixis)이다. Levinson(1983/1992:60)은 직시를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모든 자연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직시 해석이 없이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본고는 Levinson(1983/1992)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시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번역연구에도 기여할 만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직시와 관련된 한·일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고, 직시와 비직시 표현을 통합한 번역연구, 그리고 ST의 의미의 동일성에 초점을 둔 직시 연구는 극히 드문 편이다. 또한 Levinson(1983/1992)이 제시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연구 결과를 고정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분석한 것이 주류로, 한국어 또는 일본어에 나타난 개별 언어의 특성을 주체로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성, 즉 주어진 상황에 따라 특유한 전용(轉用)이 일어나는 인칭 표현의 의미의 동일성을 밝히는 데 영어의 인칭 직시 개념을 넘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 개념을 중심으로,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인칭 직시 및 비직시 표현을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본고에서 언급하는 '의미'란 소위 '사전적 의미(meaning)'가 아니라 텍스트 맥락(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파악되는 '정보의 의미(sense)'(박숙종 2002:534)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번역

20세기 중엽 이후에 언어학적 연구부터 해방시킨 '화용론적 전환(pragmatic turn)'은 그때까지의 번역 변이에 관한 정적(靜的) 언어유형론적 번역분석을 떠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점이 번역이론의 재정립을 가져왔다(Munday 2001/2016:114). 즉 번역을 단순한 어휘치환이 아니라 서로 다룬 두 언어체계 간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1.1. 기능주의적 접근법

Reiß & Vermeer(1984/1991, 안인경 외 역 2010:61-62)는 번역을 이(異)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보제공으로 본다. 따라서 번역을 출발어 문화(source culture; SC) 수신자에 향한 정보제공이 도착어 문화(target culture; TC) 수신자에게 새로운 정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하는 SC와 TC 쌍방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적 전이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2.1.2. 관련성 이론적 접근법

Sperber & Wilson(1986/1996)이 제시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RT)'[2]을 번역에 도입한 Gutt(1991/2000)는 번역을 해석과 추론(inferencing)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하나로 보고(Munday 2001/2016:101-102), 번역을 '2차적 커뮤니케이션'[3]이라고 규정한다. Gutt(1991/2000)의 번역 논리는 원저자가 ST에 담은 정보 의도를 가능한 한 독자가 해석할 수 있는 '케뮤니케이션 단서(clue)'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원저자와 TT 독자 사이에서 성공적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번역자는 화자(또는 원저자)의 정보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가, 기술적(descriptinely) 또는 해석적(interpretively)으로 번역하는가, ST와 얼마나 유사성(rescembalance)을 가지는가 하는 결정에 있다.

2.1.3. 의미의 이론적 접근

Seleskovitch(1989)는 번역이 이언어(異言語) 간에서 단순한 언어 치환이 아니라 번역과정에서 ST의 언어적 형태를 탈피하여 그 언어에 내포된 의미(sense)를 파악, 추출하는 '탈언어화 또는 비언어화(deverbalization)'를[4] 통해 TL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심적 이미지(mental representation)를 새로운 표현으로 TT에 재현하는 과정(강수정 2019:8)이라고 주장한다. 즉 의미의 이론적 접근은 ST의 언어적 형식(어휘 또는 용법)이 아니라 의미에 초점을 맞춰 그 의미를 TL로 재표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鳥飼 2013, 박은정·우메무라 역 2021:188).

---

2) 용어 'Relevance Theory'는 관련성 이론 이외에 '적합성 이론, 관여성 이론, 인지적 화용론'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3) 이러한 견해는 Reiß & Vermeer와 동일한 입장이다.
4) Lederer(1994, 전성기 역 2001:37)는 '탈언어화'를 ST의 한 대목의 의미가 속속들이 이해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정의하여, '탈언어화'에 의하여 언어적 형태들이 소멸된다고 해도 정보나 의미의 손실 및 오류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2.2. 텍스트 정보의 의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역을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삼는다면 번역자는 우선 ST 독자로서의 입장으로 원저자가 텍스트에 담긴 정보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ST의 의미와 동일한 기능을 이루는 TT를 재현하고 ST 독자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TT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야말로 번역의 핵심이며, 번역이란 'ST의 의미와 동일한 TL로 표현하는 것', 또는 'ST와 TT 사이의 의미의 등가 제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2.2.에서는 '의미'라는 관점에서 지시대상에 대한 언어표현과 거기에 담긴 의미와의 관계, 그리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정보의미의 이분법적 유형

'의미'에 대한 언급은 그 의미를 다루는 관점이나 배경 이론의 차이에 의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배경 이론이나 입장은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논점의 차이를 가져오고 의미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류방법을 나타내게 되었다.

Nida 외(1969), Gutt(1991/2000), 쭈子(1999) 들은 번역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미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정보의미의 분류

이론가	의미의 종류		배경 이론
Nida 외(1969)	지시적 의미	내포적 의미	기능주의
Gutt(1991/2000)	명시의	비명시의	관련성 이론
쭈子(1999)	어의	의의(기호작용+의의)	Coseriu(1978)의 3가지 의미

2.2.2. 내포적 의미의 성질별 분류

앞 〈표 1〉에 제시한 이론가들을 비롯하여 Seleskovitch & Lederer(1984), Reiß & Vermeer(1984/1991), Baker(1992)는 내포적 의미[5]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음을 강조한다.[6]

본고는 Nida 외(1969), Leech(1981), Baker(1992)가 제시한 내포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표 2〉와 같이 성질별로 정리하였다.

5) 본 연구에서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 Nida 외(1969)가 제시한 용어, '지시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6) 번역에서 내포적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번역자가 그것을 간과하면 적당하지 않은 단어나 표현을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TT 독자를 ST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원저자와 TT 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ST 독자와 TT 독자의 인지적 효과 차이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성질별 내포적 의미

성질	의미 내용
연상적 의미 (associated meaning)	연상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로, 특정 언어표현에서 연상된 지시대상의 특성을 가리키는 의미
사회적 의미 (social meaning)	특정 언어표현이 실제 언어사용의 배경(화자와 청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나 관계 등)에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의미
정서적 의미 (affective meaning)	특정 언어표현을 사용하는 언어사용자(화자 또는 원저자)의 심리적 또는 인지적 상태(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의미

내포적 의미의 유형은 특정 언어표현이 가지고 있는 지시적 의미의 차원을 기반으로 그것을 넘어, 특정 언어표현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속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분류된 것이지만, 각각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번역자가 이해 단계에서 ST의 인칭 직시적 표현의 내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표 2〉에 제시된 하위분류를 다음 〈표 3〉과 같이 설정한다.

〈표 3〉 내포적 의미의 성질에 따른 일본어 인칭 표현

성질	일본어 인칭 표현
연상적 의미	남성어 · 여성어, 역할어,[7] 지역방언[8]
사회적 의미	상하 ·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나타난 호칭
정서적 의미	텍스트 내 표기의 변종

3.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문학작품 중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로 소설은 이야기의 배경 정보와 아울러 등장인물의 인격,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텍스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발화가 때로는 생생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와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함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 차이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텍스트는 아래 〈표 4〉에 제시한 6권이다.[9]

---

7) 金水(2003:205-206)는 특정한 말투(어휘·어법·표현·억양 등)를 들으면 그 특정한 인물상(연령·성별·직업·계층·시대·용모·풍모·성격 등)을 떠오를 수 있을 때, 또 특정한 인물상이 제시되면 그 인물이 사용할 언어를 떠오를 수 있을 때의 말투를 '역할어(役割語)'라고 정의한다.

8) Leech(1981)는 지역방언을 사회적 의미에 속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언이 특정 사람의 특성을 연상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연상적 의미에 속하는 요소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9) ST를 선정하는 데 있어, 우선 문학상 수상 작품 또는 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소설, 작품이 쓰인 시대의 일본 세태를 반영한 내용, 드라마나 영화, 만화책과 같은 다른 장르로 재번역된 베스트셀러 작품 중,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번역문학으로 출판된 것을 택하기로 하였다.

〈표 4〉 분석텍스트(ST)

제목	(약칭)	저자 (성별)	출판사	출판 연도
変身	変	東野圭吾	東京: 講談社	1991
センセイの鞄	セ	川上弘美	東京: 新潮社	2001
博士の愛した数式	博	小川洋子	東京: 新潮社	2003
プラナリア(全五編)	プ	山本文緒	東京: 文芸春秋	2005
卒業(全四編)	卒	重松清	東京: 新潮社	2006
君は月夜に光り輝く	君	佐野徹夜	東京: KADOKAWA	2017

ST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본에 '재번역'본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텍스트의 '최초의 번역(first translation)'을 포함하여 분석텍스트로 선택하였다.[10] 따라서 일본어 텍스트 6권에 대응하는 한국어 텍스트는 아래 〈표 5〉와 같이 총 8권이다.

〈표 5〉 분석텍스트(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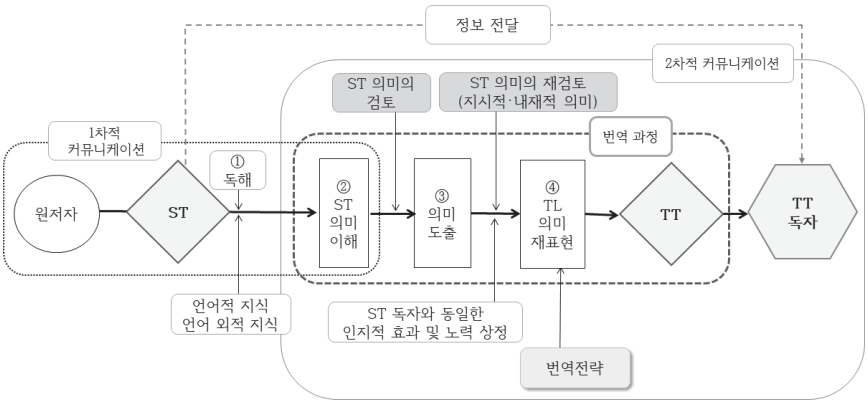
제목	(약칭)	번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변신	변	이선희	서울: 창해	2005
사소한 변화	사	권일영	파주: 비채	2019
선생님의 가방	선	서은혜	서울:청어람미디어	2003
박사가 사랑한 수식	박	김난주	파주: 이레	2004
플라나리아	플1	양윤옥	서울: 창해	2006
플라나리아	플2	양윤옥	파주: 예문사	2016
졸업	졸	고향옥	서울: 양철북	2007
너는 달밤에 빛나고	너	박정원	서울: 디앤씨미디어	2018

3.2. 분석방법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 직시적 표현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한 또는 한일 번역을 수행하는 데에 번역자가 겪는 부담은 특별히 없고 SL부터 TL로 기계적으로 옮기는 직역 방법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 언어는 완전히 비슷한 의미와 형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의미를 나타내는 독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저자가 의도한 정보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SL과 TL 사이의 문법·어휘적 의미, 즉 지시적 의미가 같더라도[11] ST의 해당 표현이 대화 문맥 속에서 내포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상정하여 ST의 의미를 반영한 표현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번역과정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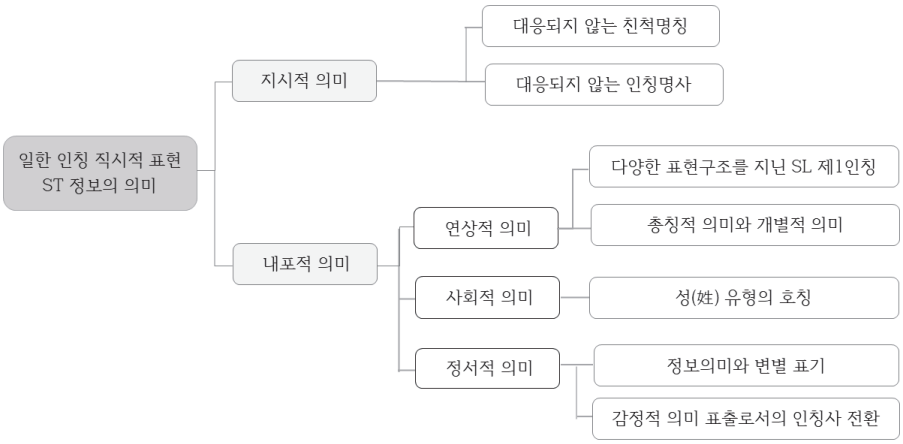
10) 사회적·문화적 상황 및 번역규범(initial norm)의 변화는 특정 텍스트를 다시 번역한다는 선택을 유발하고, 번역자의 새로운 시점, 창의성, 주관성 등이 텍스트에 반영되어,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 예를 들어 일본어 평칭 제1인칭 '僕'와 '俺'는 청자가 받는 화자에 대한 인상은 다르고, 또 소설에서 나타나는 '僕'와 'ぼく'의 표기 차이는 특정 어구에 포함한 연상을 TT에서 명확히 재현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경우가 있다.



〈그림 1〉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번역과정

〈그림 1〉은 2.1.에서 살펴본 기능주의 접근법, 관련성 이론적 접근법, 의미의 이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번역자가 ST의 의미를 TL로 재표현하기 위한 인지 과정과 실제 수행하는 번역행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본고는 〈그림 1〉 ①② 해석 단계를 거쳐 ST 화자(또는 원저자)가 의도한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재현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지시적 의미 및 내포적 의미 항목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여 분석텍스트 사례를 통하여 ST(원저자)의 의도가 TT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커뮤니케이션 효과(communicative effect), 또는 인지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TL 직시적 표현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2〉 ST 지시적 · 내포적 의미의 조정항목

4. 사례 분석

4.1. 정보의 지시적 의미 조정·재현

지시적 의미란 ST의 문법형식이나 구체적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표현이 본질적·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지시대상의 의미(내용)를 말한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SL의 문법적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TL로 재표현해야 한다.

대부분의 언어는 일반적인 상위어를 갖지만, 구체적 하위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 번역에서 SL과 TL의 단어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등가는 통사론적·의미론적 관점으로 '의무적 명시화(Obligatory explicitation)'가 요구된다(Baker & Saldanha

2011, 藤濤 外 訳 2013:76). ‘명시화’란 ST 내에 묵시적으로 내재된 요소를 TT에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번역방법(박윤철 2020:162)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개념적 구분이 SL에 부재한 경우, TL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ST 정보가 TT 독자에게 더욱 명확히 전달된다.

일한 번역에서 명시화 현상은 친척관계 개념 구분에서 나타난다.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 친척명칭은 부계(父系 patrilineal)·모계(母系 matrilineal)에 따른 분류, 화자의 성별에 따른 호칭 분류, 예를 들어 ‘고모, 이모’ 또 ‘형, 오빠, 누나, 언니’와 같이 나누어 표현하는 체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일한 번역에서 친척명칭의 명시적 재현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사례 (1)은 화·청자가 남자인 경우에 나타난 친척명칭의 명시화이다.

(1) ST. 香山が直接的に彼の兄に言及するのを、僕は初めて聞いた気がした。
A:「なぁ？兄貴とお前の姉ちゃんって、付き合ってたとき、二人でどんな話してたんだろうな」
B:「想像もつかないな」(君 194)
TT. 카야마가 내 앞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형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 아닌가 싶었다.
A: “있잖아. 우리 형하고 너희 누나, 사귈 때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B: “상상도 안 가는데.” (너 190)

ST ‘兄貴’는 주로 남자가 사용하는 호칭으로, 형의 경칭 또는 정답게 이르는 말이고, 또 ‘姉ちゃん’은 ‘누나, 언니’를 정답게 이르는 말이다. TT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라 ‘兄貴’는 ‘형’, ‘姉ちゃん’은 ‘누나’를 대응함으로 ST에 나타나지 않는 친척명칭을 명시화하고 있다.

4.2. 정보의 내포적 의미 조정·재현

번역자가 번역작업에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일은 ST에 내포된 의미이다. 문학작품과 같은 표현적(expressive) 텍스트[12]의 번역인 경우, ST의 예술적·창조적 형식을 TT에서도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원저자가 의도한 정보의 의미를 살리면서 TT 독자에게 유사한 미적 효과를 전달해야 한다.

4.2.1. 연상적 의미

(2)는 ST의 총칭적인 말이 TT에서는 개별적인 말로 하위구분하여 번역된 사례이다.

(2) ST:「質問をしてきました。成功ですよ、先生」(変 6-7)
TT1: “질문을 했어요! 성공입니다, 박사님!” (변 9-10)
TT2: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이에요. 교수님.” (사 10)

ST ‘先生’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교사, 교수)뿐만 아니라 의사, 스승, 변호사, 세무사, 정치인 등의 직업군과 같은 학

12) 텍스트 타입 중 하나인 ‘표현적 텍스트’는 시나 연극, 기타 문학작품 등을 말하며, 원저자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창조적인 구성을 활용한 정보 형식으로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려는 기능을 가진 텍스트다. 이러한 텍스트 타입에 따른 분류는 언어로 표현되는 텍스트마다 각각 기능을 가진다고 본 Reiß(1971)가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번역과 연관지어 제시한 것이다.

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도적 처지에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경칭으로 일반화되어 쓰이고 있다. 한국어도 일본어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나, TT는 ST에서 총칭적 의미로 지시된 대상의 신분을 '박사님, 교수님'으로 개별적 의미, 즉 ST '先生'에 내포된 사람의 속성을 구체적 단어로 대응하고 있다.

또 일본어에는 지시적 기능을 지니지 않고 글자 그대로의 의미나, 어원적 의미에서 벗어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제3인칭 '彼, 彼女'가 있다. 이것은 대화 상황에 따라 지시대상이 변하지 않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가리키는 말인데, '남편, 아내'까지 확장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彼·彼女'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화자의 주관적 가치판단(平子 1999:92)이 개입되어, '애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의미·기능적으로 제3인칭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유명사에 준하는 명사' 혹은 '보통명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은 그 사례다.

(3) ST: 彼女と二人きりで過ごせる時間というのが、僕にはとても貴重なものに思えた。(変 39)
TT1: 그녀와 단둘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변 48)
TT2: 메구미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란 것도 너무 소중했다. (사 44)

TT2는 여지 친구 이름인 '메구미'를 대응하고 있다. 이름 호칭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 친한 사이에서 사용된다. 즉 이름으로 대응함으로써 화자와 지시대상이 특별한 관계에 있음(우메무라 2020:115)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TT1은 제3인칭 '그녀'를 선택하였다. 이는 ST의 구조에 치우친, 즉 단순한 일대일 전환을 다루는 직역 방법을 취한 것인데, ST '彼女'가 지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는 어렵고, 한국어 표현으로서의 적합성, 가독성이 떨어진 어색한 일본어식 표현, 즉 번역투라고 할 수 있다.

4.3.2. 사회적 의미

호칭접미사와 관련하여 한·일 대조연구나 일본어 교육에서 호칭접미사 '-씨'와 '-さん'을 대응하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씨'와 '-さん'은 사용 가능한 범위[13]에 차이가 있다. 일본어 호칭접미사 '-さん'과 한국어 호칭접미사 '-씨'를 비교해 보면 일본어 '-さん'은 훨씬 넓은 범위에서 사용된다.

일본어 호칭접미사 '-さん'은 화·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나 친소관계와 무관하게 두루 쓰이는 말이다.[14] 원래의 의미로서는 '-さん'은 존칭으로 쓰이는 접미사이지만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될 경우, 상대방을 높여 대우하는 기능은 없어진다. 그러나 학교나 회사와 같은 공적 장소에서는 존칭 없이 사람을 부르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위로 인식된다. 그 때문에 상하 관계가 분명히 성립된 아랫사람에게도 호칭접미사 '-さん'을 결합한 호칭을 사용한다. (4)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발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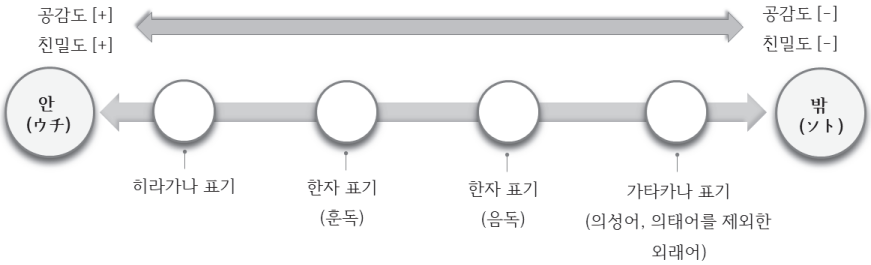
(4) ST: 「大野さん、歌うとるよ」と先生が声をかけると、(中略)
「大野さんを笑うたらいけんよ。大野さんは今日から歌をうたわんように、一所懸命がんばるんやけん、みんなも応援してあげんといけんのよ。同じクラスの仲間なんやからね」(卒 45, 52-53)
TT: "마유미, 노래하고 있구나," 하고 말을 건낼 때마다 ……(중략)……
"오노를 웃게 하면 안 돼요. 오노는 오늘부터 노래를 안 부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도 응원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은 반 친구니까." (졸 127, 132-133)

13) 우메무라(2023:114-119)를 참고할 것.
14) 日本文化庁『新しい時代に応じた国語施策について: これからの敬語』https://www.bunka.go.jp/(2022.08.30. 검색)

TT에서 동일 인물에 대한 호칭의 혼재가 나타났다. 화자는 지시대상 '大野(오노)'의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성립하면서 친한 사이다.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 이름 '마유미'를 대응시킨 첫 번째 호칭은 한국어로서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번역자는 중심 청자[15]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별하여 대응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후행문 '오노(마유미의 성)'는 지시대상이지만, 중심 청자는 같은 반 친구들로 이동하고 지시대상 '오노'는 주변 청자가 된 것이다. 즉 대화의 상대방을 직접 가리키는 경우와 제삼자로서 지시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대상을 지칭하는 방법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행문의 ST '大野さん'을 '오노'로 대응한 번역은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성' 단독으로 호칭어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T '오노'는 지시대상의 이름 '마유미'로 바꿔 호칭의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4.3.3. 정서적 의미

일본어는 언어사용을 규정하는 사회적 요인[16]에 따라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 영역에 있다고 인지하면 그 상대방은 '안' 측의 사람, 즉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지 않는 '나의 세력권 내에 있는 동료'로 간주하는 한편, 이 영역을 벗어나는 상대방은 공동 영역 외, 즉 '밖'의 사람, 즉 인간관계에 거리를 둔 '마음을 열지 않는 대상'으로 삼는다(森田 1995, 허인순·김영진 역 2003:344). 이러한 '안(ウチ)'과 '밖(ソト)'이라는 지배적 인지구조는 〈그림 3〉에서 보듯이 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안 · 밖(ウチ · ソト)' 공간적 심리개념에 따른 표기의 계층구조

(5)는 뇌이식 수술을 받은 후, 화자 B는 기억에 얇은 천이 덮여 있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고 꿈과 현실을 구별하기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자신을 돌봐 주는 의과대학 조수 A조차 '見たことのある女性/본 적 있는 사람'이라고 발화하였듯이 순간적으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B의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려고 원저자는 사람 이름을 친밀도가 낮은 가타카나를 적용하였다.

(5) ST. A^1 :「目が覚めたようね」(中略) 見たことのある女性だ。
B^1 :「あなた.....は?」と僕は声を出した。
A^2 :「もうお忘れ? タチバナです」(変 11)
TT. A^1 : "정신이 들었군요." ……(중략)…… 본 적 있는 사람이다.
B^1 : "당신……은?"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A^2 : "벌써 잊어버렸어요? 다치바나예요." (사 15)

15)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의도한 청자를 말한다.
16) '사회적 요인'이란 언어사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뜻하는데,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상하 관계'와 '친소관계'가 언어사용(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주고 이들에 의하여 정중성 정도가 결정된다.

ST처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표기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낼 수 없는 TL에서도 B가 A와 지시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문맥을 통하여 TT 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저자가 의도한 정보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하여 A[2] 의 발화를 첫 대면에서 이름을 댈 때처럼 화자의 성명인 '다치바나 나오코'로 대응한다면 B가 A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을 더 나타낼 수 있다.

또 한자를 가타카나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독자에게 마치 외래어처럼 '생소한 말', 즉 '밖'이라는 인지적 효과를 가져온다. (6)은 화자는 고용주이고 청자는 파출부이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6) ST: 「どなたも長続きしなくて、私もギテイも大変困っております。新しい方が 来られるたび、またすべて一からやり直しで、手間ばかり掛かります」 ギテイとは義理の弟のことを言っているのだと、ようやく私は理解した。「……月曜から金曜まで、午前十一時に来て、義弟にお昼を食べさせ、部屋の中を清潔に整え、買物をし、晩ご飯を作って夜の七時に帰る。たった、それだけです」(博 9-10)

TT: "다들 오래 있지를 못해서 나나 도련님이나 난감해요. 새로운 분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힘이 들어서." 도련님의 시동생을 말한다는 것을 겨우 알았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열한 시에 와서 도련님에게 점심을 해 주고, 방 청소를 하고, 장을 봐오고, 그리고 저녁밥을 지어놓고 일곱 시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박 9)

앞 4..1.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계·모계에 따른 분류, 화자의 성별에 따른 호칭 분류 등, 친척명칭에 관한 하위어가 없는 일본어에서는 (6)의 지문에 있듯이 청자는 'ギテイ'라는 말을 듣고 화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기 인식 '밖'에 있는 대상으로 표하기 위하여 가타카나로 표기된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한자어 '義弟'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선행 지문에서 이미 'ギテイ'가 화자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한자어 '義弟'로 되돌려 표기한 것이다.

한편 '義弟'는 한국에서 거의 쓰지 않는 친척명칭이기 때문에 번역자는 ST 'ギテイ'의 지시적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17]을 의미하는 '도련님'으로 명시화한 것이다. 일한 번역에서 TT와 같은 친척명칭 명시화는 지시적 의미의 측면에서 해석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TT 독자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으로서는 올바르다. 그러나 원저자가 변별 표기에 담은 의미, 즉 파출부의 인지적 변이가 사라져 버렸다.[18]

표현방법의 하나인 표기는 '안·밖(ウチ·ソト)' 공간적 심리개념에 따른 변별 표기 이외에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게 된다. 비관용적(非慣用的)인 가타카나 표기는 성질이나 상태, 감각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다음 (7)은 그러한 ST가 의도한 의미를 TT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번역자의 노력이 보이는 사례이다.

(7) ST: 正式には松本春綱先生であるが、センセイ、とわたしは呼ぶ。「先生」でもなく、「せんせい」でもなく、カタカナで「センセイ」だ。(先 10)

TT: 제대로 그를 부르면 마쓰모토 하루쓰나 선생님이 된다. 나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은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선. 생. 님.**이다. (선 7)

TT는 ST의 'センセイ'가 사전적 의미로서의 '선생님'이 아닌 의미, 즉 존경심이나 친밀감, 나아가 사랑과 같은 화자의

17) 네이버 사전. 우리말 바로쓰기「남편의 동기를 부르는 말」 https://ko.dict.naver.com/(2022.12.07. 검색)

18) 일한 대중소설 번역에 나타난 직역과 의역에 대하여 언급한 호사카(2003:107)는 거의 쓰지 않는 한국어 표현을 문장을 매끄럽게 한다는 차원에서 TT에서처럼 번역할 수도 있다고 일단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무대는 일본이고 일본소설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번역이 어려운 구절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직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감정을 기울이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살리기 위하여 글자 모양을 변경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방법은 TT 독자가 텍스트를 본 순간에 그 차이를 알아챌 수 있다는 ST의 가타카나 표기와 동일 기능, 즉 한정된 의미를 명시화한다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인칭 직시적 표현은 SL의 배경에 있는 화자(원저자를 포함)의 사고와 이미지에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번역자는 그 의미(sense)를 파악하여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특히 문학작품 번역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원저자의 문체이나 어휘 선택, 등장인물의 묘사, 표현 양식 등, 형식적 측면에 가치를 가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공유 인지환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저자와 TT 독자 사이에는 '문맥간극(contextual gap)'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맥간극이 생기게 될 경우, 번역자는 원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추론하여 TT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平子義雄(1999),『翻訳の原理』, 東京: 大修館書店. Hirako, Y.(1999), Honyakunogenri(The Principle of Translation), Tokyo: Taishukan Publishing.

Gutt, E. A.(1991/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2nd edition, Manchester: St Jerome.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nday, J.(2001/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4th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 영어 번역본『The Briefcase』(Powell trans. 2012)에서는 ST 'センセイ'를 고유명사(애칭)로 삼아, 소리나는 대로 'Sensei'를 대응하고 있다.

한일 번역의 리스크 관리 연구
-공공번역, 음식명 한자어를 중심으로-

후지모토 타쿠미(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1. 서론

번역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행위, 즉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Holz-Manttari(1984), Reiss와 Vermeer(1991) 등).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板場와 池田, 2011: 7)으로, 번역에는 이 불확실성의 영향, 즉 리스크(risk)[1]가 존재한다. 이 번역의 리스크(risk in translation)에 주목하여, Pym은 번역의 리스크가 번역 행위의 결과물인 TT(Target Text)를 도출하는 방법에 '정답'이 없다는 '번역의 불확정성'에 기인한다고 논의를 시작했다(武田, 2010: 177-178). 이 번역의 불확정성이 불확실성의 원인인데, 이는 번역 행위의 목적, 행위자, 시공간 등 상황(contexts)에 기인한다.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즉 번역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in translating)의 관점이 중요하다. AI 번역의 등장, 번역 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대 등 번역을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번역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은 번역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번역된 TT의 사소한 언어 사용에 차이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한일 관계에서는 이 번역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1.1. 연구 목적과 방법

1.1.1. 번역의 리스크 분석

ISO(n.d.)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대응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전자의 리스크 분석은 리스크의 특정, 해석, 평가 순으로 세분화된다. 즉 리스크 특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Kussmaul(2011: 145)은 '번역의 위험을 알면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금언을 좇아 문제를 인지하라'고 권유한다. '번역의 위험을 아는 것'이 리스크를 특정하는 일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번역의 리스크를 특정하는 것이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표준을 2009년에 ISO 31000(ISO n.d.)으로 정리하여 발행하였고, 여기서 리스크를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의한다.

1.1.2. 번역의 리스크 대응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ISO(n.d.)의 리스크 관리 정의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리스크 대응과 관련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특정한 번역의 리스크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번역 행위자로서의 번역자와 번역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번역(public translation)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공공번역은 공공기관이 공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번역으로[2] 그 결과물은 규범성과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공공번역에서는 번역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논의, 일례로 여러 번역자가 여러 번역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도출되는 TT의 형태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표준화를 위한 논의 등이 계속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하, '공공용어 지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공공용어 지침을 비롯한 공공번역 관련 논의를 통해 어떠한 번역의 리스크가 있는지 특정하고, 대응 방법으로써 어떠한 번역 방법이 상정되어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번역의 리스크와 번역 방법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례연구로는 한식진흥원이 2017년 12월 발행한 『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에 제시된 700개 음식명 중 한국어 ST(Source Text)가 한자어인 음식명의 한일 병렬말뭉치 85개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 선정 이유는, 음식명은 공공용어 지침 [별표 4]에서 따로 예시를 들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 대상 항목이며 대표적인 문화소이기 때문에, 여러 번역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같은 한자문화권의 속하며 많은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 번역에서는, '한자어 번역은 한글을 한자로 표기한다'는 번역 규범(norms)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용어 지침 제2장 제4조 '③일본어'에는 "한자어는 한자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술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의 중국어 TT는 실제로 단순 한자 전환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일본어 TT를 살펴보면 단순 한자 전환은 오히려 소수이다. 『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의 초판을 분석한 이은조(2017: 23)에서는 단순 한자 전환이 전체 용어 중 1.5%에 불과하다. 번역자가 단순 한자 전환보다 더 큰 노력(effort)이 필요한 TT를 도출했다는 것은 번역자가 어떠한 리스크를 크다고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리스크가 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도 크기 때문이다(Pym 2015: 73). 이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번역 변이(translation shift)에 주목하고, 번역자가 고려한 리스크와, 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번역 방법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분석 대상인 ST와 TT를 대조하여 어떠한 번역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분류한다. 분류 틀은 김한식 외(2017), 이은조(2017) 등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공공용어 지침을 바탕으로 Vinay와 Darbelnet(2003)을 비롯한 번역 방법[3] 분류를 참고하면서 분석 대상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확정한다. 새롭게 분류 틀을 설정하는 이유는 번역 변이의 유무와 변이의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정제한다.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에 제시된 700개 음식명에서 한국어 ST가 한자어[4]인 한일 병렬말뭉치만 추출한다. 각 음식명이 본 연구의 최대 번역 단위(units)가 된다.

다음으로 각 ST와 TT를 대조하여 번역 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서 설정한 분류 틀로 분류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

2) 정호정과 임현경(2013: 17)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으로 정의하였다.

3) Vinay와 Darbelnet은 '번역 절차(procedur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외에도 방법, 전략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ST를 TT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번역 방법으로 통칭하기로 할 것이다.

4) 표준국어대사전과 공공용어 지침의 예시를 한자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번역의 리스크와 번역 방법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 질문의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번역의 리스크란 무엇이며, 어디에 존재하며, 그 변인은 무엇인가?
2. 번역의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3. 공공번역에서의 번역의 리스크 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번역의 리스크

리스크(risk)는 일반적으로 경영학 개념으로 ISO(n.d.)는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의한다. 불확실성의 영향이란 '예상으로부터의 일탈'이며,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를 원용하면 번역의 리스크는 '번역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Pym은 번역의 리스크를 '번역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으로 정의했다(Pym 2005: 71을 Matsushita 2014: 86에서 재인용). 즉 부정적인 영향만으로 번역의 리스크로 한정하였다. Pym은 번역이론의 패러다임을 불확정성과 등가로 양분(武田, 2010: 7)할 정도로 불확정성을 핵심으로 보았는데, 불확정성이란 어떤 ST가 여러 TT로 번역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규칙이 없다는 것(武田, 2010: 177)을 의미한다. 이 불확정성이 번역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의 원인이다.

Pym은 리스크가 높을 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커지고, 리스크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도 작아진다고 보는 정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2015: 73). 본 연구에서도 번역의 리스크를 높은 리스크와 낮은 리스크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Pym(2015)은 번역의 리스크를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첫째는 신용성 리스크(credibility risk)로 번역자가 참여자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는 리스크, 둘째는 불확실성 리스크(uncertainty risk)로 번역 방법을 판단하는 인지적 과정을 포함한 리스크, 셋째는 의사소통상의 리스크(communicative risk)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리스크다. 신용성 리스크는 번역자와 다른 번역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리스크이며, 불확실성 리스크는 번역자와 ST 사이에 존재하는 리스크이다. 한편 의사소통상의 리스크는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 요소 사이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상의 리스크가 번역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Matsushita 2015b: 2-3).

2.1.1. 변인

1970-80년대 독일에서 등장한 기능주의적, 의사소통적 접근법(functional and communicative approach)은 기능주의 번역이론으로 불리며(Munday, 2006: 97) 여기서 번역은 목적을 지닌 문화 간 행위로 정의된다(Schaffner, 2013: 87). "번역의 품질은 커뮤니케이션의 변수에 의해 평가된다"(이연향, 2005: 61). 번역 행위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변수, 즉 상황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Holz-Manttari(1984)는 번역의 상황 요소: 발주자 및 번역자, 사용자, 메시지 수신자 등의 참여자(participants)와, 참여자의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 및 장소, 매체에 대해 논의했다(Nord, 2006: 22). Nord는 이러한 상황 요소를 '번역 브리프(translation brief)' 논의에서 세분화하였는데, 여러 변수를 '등가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

여,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 의사소통 행위자(agents), 텍스트가 수용되는 시간 및 장소, 매체, 동기 등을 번역 행위를 규정하는 언어 외적 변수로 설명했다(Ibid. 15, 49-50, 11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번역의 리스크에는 (의도된) 최종수신자, 시간, 장소, 정황, 매체, (의도된) 텍스트 기능 등 변인이 있다고 유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종수신자가 바뀔 경우 번역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2020년에 처음 공포된 공공용어 지침에는 한국어 ST '김치'에 중국어 TT '泡菜(파오차이)'가 제시되었었다. 번역자는 최종수신자로 중국어 화자를 생각하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음식명 '泡菜'로 번역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고유의 음식을 중국 음식으로 번역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이듬해 공공용어 지침은 개정되어 ST '김치'의 중국어 TT는 [김치]와 발음이 비슷한 '辛奇(신치)'로 대체되었다[5]. 이 경우 번역자는 사회적 비판을 받는 리스크를 중국어 화자가 이해할 수 없는 리스크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높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낮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2.2. 번역의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라는 명칭의 규격 ISO 31000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특정(identification), 해석(analysis), 평가(evaluation)의 3단계를 거친다[6]. 리스크 관리의 과정(process)에는 주어진 상황을 두고 리스크 사정(assessment)을 실시하고, 리스크를 회피, 감수, 제거, 조율하는 등의 일련의 대응(treating)이 포함된다.

번역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번역자는 리스크를 계산(Pym, 2010: 179)하여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TT를 산출한다. Hu와 Pym(2019)은 번역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하였다. 1) 리스크 회피(Risk aversion)는 생략, 일반화 등을 사용하여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서 이견이 있는 표현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생략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2)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는 축자역, 등가역을 사용하여 가역성을 높이거나, 또는 권위자나 고객의 승인을 받고 리스크를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전략이다. 3) 리스크 수용(Risk acceptance)은 마땅한 보상을 기대하는 번역자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전략이다. 4) 리스크 경감(Risk mitigation)은 보다 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보다 작은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전술의 '김치'와 '辛奇(신치)'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전략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여러 전략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는 번역자이다. 달리 말하면 번역자는 번역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하다. 번역의 리스크 관리 과정은 '번역의 리스크 분석부터 번역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TT 산출 행위까지'이다.

2.3. 번역 변이

Catford(2000)는 번역 변이(translation shift)를 'SL에서 TL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태적 대응(formal correspondence)으로부터의 이탈'로 정의하였다. 이어 변이의 종류를 층위(level)의 변이와 범주의 변이로 양분하고, 후자의 범주의 변이를 구조의 변이, 단어 분류의 변이, 단위 또는 랭크의 변이, 언어 체계 내의 변이로 세분화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공히 교착어이며 품사 분류, 어휘 체계 등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대체로 축어적인 번역이 가능하다. 따라서 번역 변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분석 대상의 한자어 음식명은 모두 한자로만 구성된 명사이기 때문

5) "김치 중국어 표기 '파오차이' 아닌 '신치'…훈령 개정 이유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839) 참조.
6) ISO 31000: 2018(en) Risk management — Guidelines, Figure 4 - Process 참조.

에 층위의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주의 변이는 빈번히 관찰된다. 예를 들어 ST '삼계죽'은 TT '鶏肉と高麗人蔘のお粥(닭고기와 고려인삼의 죽)'으로 번역되어 'と(와/과)' 및 'の(의)'라는 격조사가 추가되어 '닭고기'와 '고려인삼'을 동격으로 연결하고, 그 두 재료가 '죽'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형어 구실을 하게 했다. 아울러 ST는 '삼(蔘, 인삼)', '계(鷄, 닭고기)'이지만, TT에서는 '닭고기와 고려인삼'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高麗(고려)'라는 '삼'을 구체화하는 내용어가 추가되었고, '죽'에는 격식을 더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미화어 접두사 'お'가 붙었다. 이러한 형태소(조사, 접사, 단어)의 추가 및 삭제, 어순 변경과 같은 것이 관찰된 번역 변이이다.

번역 변이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취한 전략의 결과이다(藤濤, 2007: 14). 변이가 일어난 데에는 분명 번역자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고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역자의 리스크 관리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2.4. 번역 방법

Chesterman(2016)은 '번역 전략', '번역 방법', '번역 절차'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있다고 지적하여 거시적인 전략과 미시적인 전략으로 양분하고, 미시적인 전략을 통사, 의미, 화용적 전략으로 세분화하였다. 전략은 명시적으로 텍스트를 조작하는 형식이며, ST와 비교하여 TT 자체에서 직접 관찰 가능하다(Chesterman, 2016: 86).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TT를 생산한 형태적 전환을 번역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2.5. 한자어

한자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한자에 기초하여'의 의미가 모호하여 고대 시대에 한국어로 차용되어 발음이 변화되면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고유어로 취급되는 '김치(*沈菜)'와 같은 말이나, '유커(游客)'처럼 한자문화권에서 유래한 차용어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한자어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한자가 결합되어 한국어로서 사용되는 한국식 발음의 단어"라는 정의를 본 연구에서는 따르기로 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는 80% 정도가 일치한다(油谷, 2005: 82). 따라서 대부분의 번역자가 한국어 한자어를 번역할 때 한글을 한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규범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용어 지침 제2장 제4조 '③일본어'에 있는 "한자어는 한자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이에 반증이다. 이주리애(2013: 67)는 한자어를 '단순 전환'하는 방식이 정착될 우려를 제기한다. 번역 전략은 번역자가 규범에 반응하려고 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Chesterman, 2016: 86) 규범을 따르지 않고 변이가 일어난다면 번역자가 전략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2.6. 공공번역

공공번역이란 일반적으로 정호정과 임현경(2013: 17)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으로 정의된다. 공공기관의 번역 행위자로써의 역할이 명시된다는 것이 한국에서의 특징이며, 이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번역'이라 불리는 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번역 제공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술의 '파오차이' 논란처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성 리스크가 높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최종수신자를 의도하여 규범성을 가질 수 있는 표준적

인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리스크가 높다. 아울러,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번역의 여러 상황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상의 리스크 또한 높다. 따라서 공공번역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고려되어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공공용어 지침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 이 반증이다.

3. 번역의 리스크 관리 분석

3.1. 선행연구

번역의 리스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Pym(2010a, 2015), Hui(2012), Matsushita(2014), (2015a), 松下(2015b), Hu와 Pym(2019) 등이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한일 언어 쌍을 다룬다. 2)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단어 이상의 구,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어로 번역 단위를 한정함으로써 공공번역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용어 번역에 초점을 맞춘다.

3.2. 번역의 리스크 특정

리스크와 그 관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용어 지침을 비롯한 관련 선행연구에 연구자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분류 체계를 먼저 설정한다.

3.2.1. 고유성과 관련된 리스크

자국화 번역 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등, TT에서 ST의 고유성이 상실되는 경우를 번역의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고유성 리스크로 칭하기로 한다.

전술의 ST '김치'가 TT '泡菜(파오차이)'에서 '辛奇(신치)'로 바뀐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동시에 ST '떡'의 일본어 TT는 '餅(mochi)'에서 'トク(toku)'로 변경되었다. '한국의 고유문화의 전통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라서 음역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TT에서 ST의 고유성을 전달한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불확실성을 높은 리스크로 인식하였고, 관리 전략으로는 음역이 선택되었다.

3.2.2. 가역성과 관련된 리스크

서로 다른 ST가 같은 하나의 TT로 번역된 경우, ST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를 번역의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가역성 리스크로 칭하기로 한다.

공공용어 지침 제9조 ③ 3.은 "음역 표기가 같은 역명이 여럿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역명은 모두 음역한다는 원칙과 다른 예외 규정이다. 예시로써는 "ST: 삼성, TT: サムソン(三成); ST: 삼송, TT: サムソン(三松)"이 제시된다. 두 개의 ST를 음역하면 'サムソン'이라는 같은 TT가 산출되어 ST의 '어'와 '오'의 모음 차이를 나타낼 수 없는 데 따른 조치이다. 달리 말하면 TT가 가역성을 상실하는 것을 높은 리스크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한자를 병기하여 가역성을 확보하는 대신, 역명을 모두 음역한다는 TT의 일관성 상실은 낮은 리스크로 인식하여 감수했다.

3.2.3. 정보성과 관련된 리스크

TT에서 ST가 가지고 있던 형태소가 삭제되면 그만큼 의미 정보가 상실되는데, 이를 번역의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정보성 리스크로 칭하기로 한다.

이 리스크를 감수한 번역의 예는 'ST: 매실차 TT: 梅茶(매차)'이다. TT에서는 ST의 매실이라는 부분이 전체로 확대되어 '매(화나무)'가 되었다. 이는 번역자가 정보 상실 리스크를 낮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3.2.4. 일관성과 관련된 리스크

둘 이상의 ST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공통점이 TT에서는 상실될 수도 있는데, 이를 번역의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다. 공공번역의 번역 표준화 작업에서는 방대한 양의 번역 용어집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이것이 큰 리스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를 일광성 리스크로 칭하기로 한다.

ST '전복죽'은 TT 'アワビ粥(전복죽)'로 번역되었다. 한편 명사+명사의 같은 형태인 ST '전복내장죽'은 TT 'アワビの内臓粥(전복의 내장죽)'으로 번역되어 조사 'の(의)'가 삽입되면서 '전복'이 '내장'의 관형어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번역자가 '내장'의 의미를 명시하지 못하는 리스크보다 TT의 일관성을 상실할 리스크를 낮다고 본 것이다.

3.2.5. 경제성과 관련된 리스크

명시화, 구체화와 같은 번역 방법의 결과로 ST보다 TT의 형태소가 많아질 수 있는데, 이를 번역의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경제성 리스크로 칭하기로 한다.

ST '회냉면'은 TT '刺身入り冷麺(회 들이 냉면)'으로 번역되었다. '들다'에 해당하는 동사의 명사형 '入り'를 추가하여 명시화를 하였는데 형태소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번역자가 의미를 명시하지 못하는 리스크보다 경제성이 감소할 리스크를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3.2.6. 수용성과 관련된 리스크

ST가 TL에서의 수용성이 낮은 차용이나 한자역의 방법으로 번역되었을 때, 이를 수신자가 이해할 수 없을 불확실성을 번역의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수용성 리스크로 칭하기로 한다.

ST '구절판'은 TT 'クジョルパン([kujorupan])'으로 음역되었다. '김치', '갈비'처럼 일본에서 이미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수용성이 높은 음역과 달리, '구절판'의 음역은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번역자가 음역을 선택한 이유는 수용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6가지 번역의 리스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번역의 리스크

리스크 명칭	정의
고유성 리스크	TT에서 ST의 고유성을 전달한다는 번역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
가역성 리스크	TT에서 서로 다른 ST의 형태적인 차이를 전달한다는 번역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
정보성 리스크	TT에서 ST의 의미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한다는 번역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
일관성 리스크	TT에서 둘 이상의 ST가 지닌 형태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번역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
경제성 리스크	TT가 지닌 정보의 양이 ST보다 많아져 경제적으로 전달한다는 번역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
수용성 리스크	TT를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다는 번역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

4. 번역 방법 분류

이 장에서는 번역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번역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번역 방법을 분류한다.

4.1. 선행 연구

김한식 외(2017: 70)의 번역 방법 분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김한식 외 (2017)의 번역 방법 분류

번역 방법	정의	예시
1. 음역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된 경우	영어: 불고기(Bulgogi) 중국어: 없음 일본어: 된장(テンジャン), 떡국(トック)
2. 직역	원문 한식명에 표현된 재료명과 조리법에 대응하는 도착어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번역이 된 경우	영어: 갈치구이(Grilled Cutlassfish) 중국어: 불고기(烤牛肉) 일본어: 고등어구이(サバの塩焼き)
3. 대응역	해당 언어권에 맛과 모양, 조리법 등이 거의 비슷한 음식이 있고, 해당 언어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음식 이름으로 번역된 경우	영어: 없음 중국어: 인절미(打糕) 일본어: 계란찜(茶碗蒸し)
4. 의미역	이름만으로 어떤 음식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의 기본 의미 중심, 맛, 특징, 형태 등을 제시	영어: 가래떡(Rice Cake Stick) 중국어: 따로국밥(湯加飯) 일본어: 부각(海藻・野菜のパリパリ揚げ)
5. 혼합형	위에서 제시한 번역 전략이 함께 사용된 경우	영어: 더덕구이(Grilled Deodeok) 중국어: 콩나물해장국 (豆芽醒酒汤) 일본어: 선짓국(ソンジスープ)

한편 이은조(2017)는 공공용어 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초판인 『한식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7]』를 분석한 선행연구이다. 이은조의 번역 방법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7) 2014년에 발행되었으며 표제어가 200개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7년 12월에 발행된 증보판으로 표제어가 700개로 증가하

〈표 3〉 이은조 (2017)의 번역 방법 분류

번역 방법		정의	예시
음역		원어의 음을 살려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	ST: 김치 TT: キムチ
의역	대응역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방법 중 대응어로 바꾸는 방법	ST: 계란찜 TT: 茶碗蒸し
	의미역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방법 중 의미 등을 살려 우리말로 조어하는 방법	ST: 신선로 TT: 宮中鍋
	한자역	한국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	ST: 약과 TT: 薬菓
혼역		음역과 의역을 함께 사용하여 조어하는 방법	ST: 불고기덮밥 TT: プルコギ丼

4.2. 본 연구의 번역 방법 분류

본 연구에서 상기 두 선행연구의 분류 방법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공공번역의 최근 성과인 공공용어 지침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이유는 번역 변이를 중심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다. 김한식 외(2017)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공통되는 분류이기 때문에 한일 번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 한자 전환인 “ST: 약과 TT: 薬菓”와 앞서 언급한 “ST: 삼계죽 TT: 鶏肉と高麗人蔘のお粥”가 같은 ‘2. 직역’에 분류되어 변이의 유무로 나눌 수 없다. 한편 이은조(2017)의 분류에서는 전술의 “ST: 전복죽 TT: アワビ粥”와 “ST: 전복내장죽 TT: アワビの内臓粥”가 같은 '대응역'에 분류되기 때문에 역시 변이의 유무로 나눌 수 없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공공용어 지침을 바탕으로 Vinay와 Darbelnet 및 Malone(1988)의 번역 방법 분류를 참조하여 분류 틀을 만들고자 한다. 공공용어 지침은 2020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이하, ‘훈령’이라 약칭한다) 제427호로 제정되었고 2021년에 한 차례 개정(훈령 제448호)된 바 있는 높은 규범성을 가진 지침이다. 공공용어 지침은 제1장 제2조 및 제2장 제4조 ③에서 번역 방법을 3가지로 분류한다. 1) 음역은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이다. 일본어의 경우 “가타카나로 표기[8]하고 이때의 가타카나 표기는 [별표3]을 따라 표기”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2) 의미역은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것”이고, 3) 한자역은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으로 일본어의 경우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 분류에서 음역과 한자역은 '표기' 전환으로 명시된다. 공공용어 지침의 번역 방법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공공용어 지침의 번역 방법 분류

번역 방법	정의
음역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방법
의미역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방법
한자역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방법

이제 이 분류를 보완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분류를 살펴본다. Vinay와 Darbelnet(2003: 25-40)은 번역 방법[9]를 직접번

였다.

8) 밑줄 강조는 연구자에 의한 것임. 이하 동일.

9) Vinay와 Darbelnet은 ‘방법(method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역(direct translation)과 간접번역(oblique translation)으로 양분한 다음, “어려움이 커지는” 순서대로 7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번역이 불가능할 때 간접번역으로 넘어간다는 우선순위를 설정한 부분이다. Vinay와 Darbelnet의 분류는 아시아 언어 번역에 맞게 수정할 필요도 있다(Hui 2012: 16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취사선택을 하였다. 1) 차용(borrowing)은 공공용어 지침에서 “음역”에 해당한다. 2) 모사(calque)는 차용의 일종으로 번역 단위로 구를 상정하고 있어(Fawcett 2010: 78) 본 연구에서는 번역 단위로 단어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3)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축자역’으로도 불리며 원칙적으로 가역적이며, 동일 문화의 번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여 단순 한자 전환, 즉 한자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공공용어 지침의 음역과 한자역은 직접번역에 속한다. 남은 ‘의미역’에는 Vinay와 Darbelnet의 나머지 4가지 번역 방법이 포함된다. 4) 치환(transposition)은 품사의 변화를 수반하는 번역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모두 명사임으로 복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여기에 분류하기로 한다. 5) 변조(modulation)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거나, 일부를 전체로 바꾸거나, 일반화와 구체화 등의 전략을 모두 포함한다. 6) 등가(equivalence)[10]는 관용구 및 속담이 예시로 제시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시킨다. 7) 번안(adaptation)은 새로운 창출, 문화적인 대체 등이다.

Malone(1988: 15)은 번역 방법[11]을 일반적인 절차 4개와, 그 하위에 각각 쌍을 이루는 총 8개 및 여기에 1개를 더해 총 13개로 분류하였다. Fawcett (2010: 92-108)은 이를 Vinay와 Darbelnet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 일치(matching)는 그 하위에 일치, 동치(equation), 대체(substitution)를 둔다. 이들은 Vinay와 Darbelnet의 전술의 분류를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2) 지그재깅(zigzagging)은 발산(divergence)과 수렴(convergence)으로 나뉜다. 발산은 일 대 다수 대응으로 ‘구체화’, 수렴은 다수 대 일 대응으로 ‘일반화’라는 번역학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들로 Vinay와 Darbelnet의 변조를 세분화할 수 있다. 3) 재형(recrescence)은 하위에 부연(amplification)과 축소(reduction)를 둔다. 부연은 TT 수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번역자가 추가하여 TT 수신자와의 지식 격차를 메우기 위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내용어가 추가된 변이가 일어난 경우를 여기에 포함시킨다. 축소는 불필요하다고 번역자가 판단한 정보를 제거하는 번역 방법이다. 이 부연과 축소라는 개념 또한 변조의 하위 전략으로 넣을 수 있다. 4) 재구성(repackaging) 및 5) 재배열(reordering)은 구 이상의 번역 단위를 상정한 것이기에 논의에서 제외시킨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번역 방법 분류를 설정하고자 한다.

음역은 ST의 소리를 차용하여 공공용어 지침 [별표3] 또는 일본에서 통용되는 음역 표기[12]에 따라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ST: 초당순두부 TT: チョダンスンドゥブ(chodansundubu)”를 예시로 들 수 있다. 한자역은 한자어인 ST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ST: 산채 정식(山菜定食)이 TT: 山菜定食으로 전환된다. 음역과 한자역은 직접번역에 해당하며 단순 표기 전환이다.

의미역은 번역 변이가 없고 음차역과 한자역에 분류되지 않는 번역 방법이다. “ST: 대합탕 TT: ハマグリスープ”에서 ‘대합+탕’이라는 복합어가 ‘ハマグリ(대합)+スープ(‘soup’의 차용어)’로 전환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위 3가지 번역 방법은 번역 변이를 수반하지 않으며 이후의 방법은 번역 변이를 수반한다.

치환은 ST와 TT에서 형태소의 순서를 바꾸는 번역 방법이다. 대체로 어순이 같은 한일 번역에서는 어순을 바꾸지 않는 것이 규범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치환은 이 규범을 벗어나는 방법이기에 중요하다. ST ‘문어숙회’가 TT ‘ゆでダコ(삶은 문어)’로 어순이 바뀐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축소는 ST에서 하나 이상의 형태소를 삭제하여 번역하는 방법이다. 후술하는 부연과 함께 ST가 TT로 전환되면서 형태

10) 번역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등가의 정의와 다르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11) Malone은 '기법(trajec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2) "ST: 육회 TT: ユッケ"의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

소 수가 바뀌어 번역 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다. ST ‘생선회’는 TT ‘刺身(회)’로 번역되어 ‘생선’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부연은 ST에 형태소를 추가하여 번역하는 방법이다. 기능어를 추가한 예는 “ST: 두부전 TT: 豆腐のチヂミ(두부의 지짐)”이다. 조사 ‘の(의)’가 추가되었는데, ‘の(의)’는 관계, 상태, 재료 등을 나타내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 격조사로, 두 단어를 단순히 합쳐 복합어를 만들기에는 수용성이 낮은 경우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ST: 연근전 TT: れんこん天ぷら(연근 튀김)”의 사례에서는 ‘の(의)’ 삽입이 없다. TT는 ‘の(의)’를 생략할 수 있을 만큼 수용성이 높은 복합어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の(의)’ 삽입은 번역자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이다. 한편 내용어를 추가한 예는 “ST: 회냉면 TT: 刺身入り冷麺(회 들이 냉면)”이다. 회와 냉면의 관계를 ‘들이’라는 동사를 넣음으로써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이상의 번역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본 연구의 번역 방법 분류

방법	변이	정의	예시
음역	변이–	ST의 소리를 차용하여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방법	ST1: 초당순두부 TT1: チョダンスンドゥブ ST2: 육회 TT2: ユッケ
한자역		ST의 한자를 그대로 일본어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	ST: 산채 정식 TT: 山菜定食
의미역		번역 변이가 없고 음차역과 한자역에 분류되지 않는 번역 방법	ST: 대합탕 TT: ハマグリスープ
치환	변이+	ST와 TT에서 복합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순서를 바꾸는 번역 방법	ST: 문어숙회 TT: ゆでダコ
축소		ST에서 하나 이상의 형태소를 삭제하여 번역하는 방법	ST: 생선회 TT: 刺身
부연		ST에 조사 등의 기능어, 또는 내용어를 추가하여 번역하는 방법	ST: 두부전 TT: 豆腐のチヂミ ST: 회냉면 TT: 刺身入り冷麺

4.3. 소결

이제 위에서 도출한 번역 방법별로 분석 대상을 분류하여 그 특징과 분포에 대해서 논의하는 차례이다. 여러 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각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전술의 “ST: 삼계죽 TT: 鶏肉と高麗人蔘のお粥(닭고기와 고려인삼의 죽)”의 경우, ‘삼(인삼)’과 ‘계(닭)’의 순서가 바뀌었음으로 치환, ‘와’, ‘의’ 등 조사가 삽입되었으므로 부연, ‘닭고기’와 ‘고려인삼’은 대응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의미역, ‘죽(粥)’은 한자역으로 총 4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분석 대상의 한자어 총 85개 중 음역은 17개, 한자역은 35개, 의미역은 57개 용어에서 사용되었다. 변이는 31개 용어에서 일어났으며 치환은 2개, 축소는 2개, 부연은 28개 용어에서 사용되었다. 공공용어 지침 등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36%에 달하는 음식명 번역에서 번역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번역 방법과 번역의 리스크 분석, 6. 결론

5장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어표기 용례 사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2만 개 이상의 음식명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 방법과 번역의 리스크의 관계를 고리스크, 저리스크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할 계획이다. 6장에서는 5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정리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역(2011), 『이해와 번역(Kussmaul, P., *Verstehen Und Ubersetzen : Ein Lehr-und Arbeitsbuch*, 2010)』,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도훈 역(2010), 『번역과 언어(Fawcett, P., *Translation and language : linguistic theories explained*, 1997)』. 김도훈 역. 서울: 한국문화사.

김한식 외(2017), 『공공용어 번역(영·중·일) 수용성 연구 -주요 한식명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서울.

문화체육관광부(2021),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845(2023.05.09.)

이연향 역(2005),『번역 용어집_한국어판(Delisle, J., Lee-Jahnke, H., Cormier, M. C. (Eds.), *Translation Terminology*, 1999)』, 서울: 한국문화사.

이은조(2017), 한식명의 일본어 표기 및 번역 방안 고찰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11, 한국일본학회, 17-32쪽. Lee, E. J.(2017), A Study on Japanese Translation Methods of Korean Menu : Focus on『International Korean Menu Guide』, *Ilbonhakbo(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111, pp. 17-32.

이주리애(2013), 일본어 관광안내문 문화소의 한자 변환 번역에 관한 고찰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언어문화 24,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51-70쪽. Lee, J. R. A.(2013), Study On Chinese Characters Used In tourist Guidebooks Translated Into Japanese -Based on Survey Research of Japanese Tourists-, *Ilboneoneomunhwa(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24, pp. 51-70.

정연일 역(2006),『번역학 연구의 길잡이(Williams, J. and Chesterman, A., *The map :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2002)』, 서울: 이지북스.

정연일, 남원준 역(2006).『번역학 인문: 이론과 적용(Munday, J.,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 applications*, 2000)』,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정연일, 주진국 역(2006),『번역행위의 목적성: 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Nord, C.,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1997)』,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정호정, 임현경(2013),『공공번역 표준화의 모델 -한국형모델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한국외식정보(주)(2017),『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 서울: 한식진흥원.

板場良久, 池田理知子 편(2011),『よくわか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 교토: ミネルヴァ書房.

武田珂代子 역(2010),『翻訳理論の探求(Pym, A.,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2010)』, 도쿄: みすず書房.

藤濤文子(2007),『翻訳行為と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 機能主義的翻訳理論の諸相』, 교토: 松籟社.

藤濤文子 외 역(2019),『スコポス理論とテクストタイプ別翻訳理論: 一般翻訳理論の基礎(Reiss, K. & Vermeer, H. J.,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2nd Ed.)*, 1991)』, 교토: 晃洋書房.

松下佳世(2015b), 政治上の発言を通訳する際のリスク管理, 通訳翻訳研究 15, 日本通訳翻訳学会, 1-16쪽, Matsushita, K.(2015b), Seijijou no hatsugen wo tsuuyakusuru saino risukukanri: Kishakaiken no nichiei chikujituuyaku no kousatsu wo tsuujite(Risk management in political interpreting: Case study of a press conference held in Japan). *Tsuuyaku honyaku kenkyuu(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5, pp. 1-16.

油谷幸利(2005),『日韓対照言語学入門』, 도쿄: 白帝社.

Chesterman, A.(2016),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Revised ed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u, B. and Pym, A.(2019), Constructive ambiguity and risk management in bilingual foreign-affairs texts. The case of "One China",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6*, pp. 3-16.

Hui, M. T. T.(2012), *Risk management by trainee translators: a study of translation procedures and justifications in peer-group interaction*. Unpublished PhD dessertation, Rovira i Virgili University.

ISO.(n.d.), ISO 31000: *2018(en) Risk management Guidelines (online)*, https://www.iso.org/obp/ui/#iso:std:iso:31000:ed-2:v1:en(9, May, 2023.)

Malone, J. L.(1988), *The Science of Linguistics in the Art of Translation: Some Tools from Linguistics for the Analysis and Practice of Transl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Matsushita, K.(2014), Risk management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news translation strategies, *Honyakukenkyuu eno shotai(Invitation to translation studies)* 12, pp. 83-96.

Matsushita, K.(2015a), *Risk Manage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English Japanese News Translation*, Unpublished PhD dessertation, Rikkyo Unversity.

Pym, A.(2010a), *Text and risk in translation. Version 2.0. November 2010 (online)*, https://usuaris.tinet.cat/apym/on-line/translation/risk_analysis.pdf(9, May, 2023.)

Pym, A.(2015), Translating as risk management, *Journal of Pragmatics 85*, pp. 67-80.